

집주인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혹여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 이름으로 예약했는데 같이 오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내가 이선영이란 이름으로 투숙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주인은 '알리'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는데 나흘간 머물 손님 의 국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렇지 않다면 장석 액 자 하나 없는 방에 이런 광고지를 둘 리가 없는 것이다. 손바닥 크기의 광고지에는 'Gaeseong Pilot Condominium'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Condos for Sale in Gaeseong, Now!'와 같은 표현도 있었다. 그 문장들을 '개성시범단지'나 '개성 아파트 분양'으로 해석하는 건 좀 어색한 일이었다. 번역기가 오작동한 것 같은, 그러나 그렇게 읽지 않을 방법이 또 없는, 그런 문장들이었다.

나는 이 개성이 그 개성이라고는 얼른 생각하지 못했다. 개성이란 지명이 어디 지구상에 하나겠는가. 말 그대로 '개성' 있는 시범단지' 정도라면 모를까. 광고지 곳곳에 박혀 있는 '북한'이란 단어를 보고 나니 더 생소했다. 알리는 자기 집에 온 손님 중에 북한 사람으로서는 '이선영이 처음'이라고 했다. 알리에겐 미안하지만 내 이름은 이선영이 아니었고 북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북한 여행자가 있긴 있을까? 확실한 건 내가 이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북한 국적이 필요조건이었다는 점이다.

내가 하와이에서 며칠을 보내게 된 건 경품 당첨 항공권 때문이었는데, 오로지 1인 왕복 티켓인데다가 날짜도 10월 초로 고정되어 있어 동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영과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휴가를 낼 수 없었다. 혼자 떠날 만큼 여행을 좋아하거나 하와이를 동경했던 건 아니었으나 무료 항공권을 허공에 날리는 아까웠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호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호텔들은 대부분 만실이었고 남아 있는 것은 너무 비쌌다. 이 무료 항공권이란 게 호텔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선영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사이트를 뒤져보라고 말해주었다. 그곳에 1박에 사십 달러가 채 되지 않는 숙소가 남아 있었다. 호를룰루 공항과 들 파인에를 농장 사이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교통은 딱히 좋다고 할 수 없었지만 차가 있으면 문제될 게 없었고 무엇보다도 가성비를 고려하

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이트에서 예약 신청서를 전송한 지 삼십 초 만에 집주인으로 부터 쪽지가 날아왔다. 낙원에 오게 된 걸 환영한다며, 자기 이름은 알리라고 했다. 감사 인사를 보내자 곧이어 두번째 쪽지가 왔는데, 그날 몇시쯤 숙소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느냐는 거였고, 연이은 세번째 쪽지는 혹시 자신이 그날 일이 있어 당신을 환영하지 못한다면 당일 아침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거였다. 며칠간 나는 알리와 쪽지를 주고받았다. 주차장 유무라든지, 선호하는 커피, 수건 제공 여부와 같은 평범한 대화였다. 목장 투어를 하겠느냐, 이웃 섬도 방문하느냐, 일행이 있느냐, 그런 질문들과 거의 동급의 무게로 날아온 질문이 'North, or South?'였다. '남이나, 북이나'라니, 나는 새삼스러운 기분을 느끼며 'South'를 선택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근교에 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답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못했지만 그 쪽지를 보낸 후 돌연 예약이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급한 보수 공사였는데 타이밍이 영 수상했다. 그보다는 내가 남한 사람인 게 진짜 취소 사유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출국까지 사흘이 남은 시점, 다른 숙소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새 값이 더 치솟아 있었다.

내가 어찌지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같은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알리의 집으로

예약 신청서를 보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숙박 일정은 똑같은 예약자 이름만 다른 예약이었는데 삼십 초 만에 알리에게서 승인 쪽지가 날아왔다. 보수 공사나 뭐니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곧 똑같은 질문들—그러니까 몇시쯤 숙소에 도착하는지, 혹시 목장 투어를 할 것인지, 일행이 있는지 아니면 혼자 오는 것인지 등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North, or South?’에 이르렀다. 문제의 ‘남이나, 북이나’가 튀어나올 때까지 내가 거처온 과정은 이선영이 아닌 콰도일의 이름으로 예약했을 때와 똑같았다. 다만 숙박 날짜가 임박한 만큼 시간이 세 배쯤 단축되었을 뿐이다.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지는 십산으로 이렇게 적어 보냈다.

‘North’

이후 별다른 답이 오진 않았지만 떠나는 시점까지 예약이 취소되는 일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이선영이라는 이름의 복한 남자가 되었다.

하와이에서의 나흘은 금방 지나갔다. 서평을 배워볼까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저 오이후섬을 차로 한 바퀴 돌이본 게 전부였다. 선영과 함께했던 휴가들이 떠올랐다. 대부분 그녀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다. 함께였다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선영이 노스쇼어의 새우 트럭 얘기를 했던 게 떠올라서 그쪽으로 차를 몰았다. 새우 트럭이 하나가 아니라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게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선영은 카톡으로 원조 새우 트럭의 사진을 보내줬고, 그런 건 선영이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때마다 원조 논쟁도 다 상술이라며 선영 말대로 ‘초를 치는’ 게 내 몫이었는데, 어떤 일인지 나는 카톡으로 날아온 한 장의 사진에 짐작하고 있었다. 평소 지론대로 아무거나 먹으면 될 것을, 굳이 원조를 찾아다녔던 것이다. 결국 원조로 짐작되는 곳에서 한 점시를 먹었고 자랑스럽게 인증샷도 찍었다. 선영이 그걸 보고 기특해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반응은 그런 게 아니었다.

“원조 아니잖아.”

이런 상황들은 이번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경유지, 본 행사가 아니라 답사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그래도 몇몇 순간은 꽤 괜찮았다. 이를테면 알리와 나날 몇 병의 맥주 같은 것. 알리는 자신은 수학자라고 소개했지만 그를 먹여 살리는 건 부동산인 듯했다. 오이후섬에만 집이 다섯 채라고 했으니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확은 공식이 있지만, 부동산은 운이죠. 집값은 아무도 몰라요.”

그는 내가 복한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고 싶어했는데, 내가 개성을 고향으로 삼은 건 아마도 광고지에서 읽었던 ‘Gaescong’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개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

랐다. 그저 서울을 기준으로 평양보다는 거리가 가깝다는 정도만 알 뿐, 지도 위에서 개성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알리는 내게 방에 있는 그 부동산 이슈를 읽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별로 조언해줄 말이 없었으므로 화제를 급히 돌리고 말았는데 어쩌면 그마저도 북한 특유의 비밀스럽고 방어적인 분위기로 해석될 수 있었다. 마지막 밤이었다. 내가 말이 없어지자 그는 오히려 말이 많아졌고,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급해 보이기까지 했다. 알리의 말이 점점 빨라진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아들은 건 맨 앞머리의 'You have to' 뿐이었다. 잘 알아듣지 못했다며 되물자 그는 한번 더 힘주어 말했는데 이번에도 'You have to'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뒷말이 모두 이득해졌다. 알아들은 건, 내가 뭘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였다.

나는 북한은 물론이고 분양에도 문외한이었다. 분양이라니, 그 건 읽거나 들어도 머릿속을 그냥 통과하는 말 중 하나였다. 어릴 때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갔던 게 유일한 '분양' 관련 기억이었다. 아홉 살 때였다.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로 이사를 왔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나는 미분양이 아파트의 이름인 줄로만 알아서 한동안 미분양 아파트에 산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 분양, 그 생소한 두 단어를 동시에 생각해볼게 된 것이다. 구글맵을 열어보았다. 내가 개성이라고 짐작하던 지점이

실은 개성이 아니라 피주였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리가 내게 뭘 해야 한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북한 분양에 관한 정보를 챙겨두기로 했다. 개성신도시라니, 그건 정말 부러워할만한 상상력 아닌가. 귀한 정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농담처럼 느껴졌는데 그렇다고 광고지를 가방에 넣기는 좀 찜찜했다. 후시 출입국 때 불미스러운 일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고,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휴대폰을 꺼내 광고지의 문구가 흔들릴 없이 적히도록 조준했다. 그렇게 사진으로 북한과 분양을 모두 담았다.

“디투스는 잘했어? 나 빼빼지게 일하는 동안?”

선영은 내 공백이 무척 도드라지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가 평간적으로 이 주에 한 번씩 테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가. 면세점에서 일하는 선영은 격주로 주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에 한 번씩 만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하와이에 다녀온 4박 6일은 사실 우리의 테이트 주기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게 내 입장이지만, 선영의 계산법은 달랐다.

나는 일단 면세품 문치부터 그녀에게 전달했다. 생각해보면 혼자만의 디투스 여행이 아니라 선영의 심부름을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였다. 겨우 21인치 캐리어 하나를 들고 갔을 뿐인데, 공항에서 선영이 내 이름으로 주문해둔 면세품을 찾았을 때 그것이 거의

썰거마니 하나에 달하는 크기임을 알고 기절할 뻔했다. 내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가겠다고 했을 때 왜 그녀가 캐리어를 챙기려고 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걸 다 이고 지고 바다를 건너온 내게 이런 대우는 부당했다.

“지혜 결혼한데, 봄에.”

내게 뭔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선영의 주변 사람들은 전염병 들듯 결혼했다.

“지혜가 누구지?”

내 말에 선영은 언제 자기 친구들한테 관심이나 있었냐는 식으로 받아쳤다. 선영은 친구 중 누구는 위례신도시에 신혼집을 구했고, 누구는 미사를 선택했으며, 누구는 동탄2를 품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게 다 이 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니, 선영의 이야기는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편집된 게 분명했다. 대부분 일어서 걸러 들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선영의 말들이 컷기에 맞혔다. 분양가가 어찌고, 도로가 연장돼서 어찌고, 초등학교 두 곳이 생기고 어찌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렷하게 들린 것이다. 나는 성난에 살고 있었는데 선영이 말하는 지명들은 내게도 낯설지 않은 것들이었다. 내 주변에서 분양이 늘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지주 언급되는 몇몇 단어들도.

“초폼아, 가 뭐라고?”

“초등학교 폼은 아파트라고.”

선영이 설명 끝에 “우리도 관심 좀 갖자”라고 덧붙였기 때문에 나는 그 개성시범단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휴대폰 속에는 그 놀라운 분양 소식이 들어 있었다. 그 화면을 선영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봐봐, 분양기가 평당 팔십이래. 우리도 신혼집 계약할 수 있는데, 그치?”

선영의 눈이 동그래지기를 바랐지만, 선영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신혼집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팔십? 평당 팔백이겠지.”

“평당 팔십 맞아. 개성시범단지라고, 이거 진짜 감놀할 애긴데.”

“개성?”

“개성. 개성공단, 할 때 개성.”

“북한?”

“거기에 개성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야. 그중에서도 이게 개성 힐스라고, 시범단지의 노른자위에 있는 건데……”

선영이 내 말을 끊고 말했다.

“미친 거야?”

“부루마블 게임 같은 느낌이라 재미있지 않아? 거기에 막 개성도 있고 평양도 있고.”

“부루마블에 개성이 어디 있었어, 평양이 어디 있었냐고.”

“없었다고? 마닐라 옆에 평양 아니었나?”

“와…… 신혼집이 북한이라니 말 다 했네. 이젠 문단 현실 때문에 안 된다는 거구나. 통일이 되어야 가능한 거야, 그치? 결국 우리 결혼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싫으면 싫다고 하지, 됐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개성신도시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단 그치 이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퍼즐 하나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부투마불 게임을 하던 시절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독이었다. 선영은 매킨으로 입을 아무지게 닫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걸어나갔다.

“아!”

내 외침은 그제 전부였고,

“왜!”

그녀도 이게 전부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영이 왜 화를 냈는지 알 것도 같았다. 내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겠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까지 고민해봐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 짜증스러웠을 수도. 선영은 그렇다, 다음날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은 기간이 겨우 이틀인 건, 그 이후로 나도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번호가 구질구질하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싫었다. 싸우는 주기가 잦아지고 있었다. 선영과 나는 구 년을 사귀었다. 그런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

다’로 끝나는 동화처럼 결말일 때 의미가 있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선영은 자꾸 그걸 맨 앞에 두려고 한다. 우리는 구 년을 사귀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다음 문장을 기다리는 거다.

개성신도시 얘기가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었다. 의외로 그 얘기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통했다. 점심시간은 열두시부터였다. 팀장이 들어간 회의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거긴 마치 밀폐용기 같았다. 저렇게 꼭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압 차’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 것이다. 열두시 삼일분, 삼월분, 그리고 삼십오분이 지나갈 무렵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몇 사람이 쏟아져나왔고 서둘러 출구를 찾아 빠져나갔다. 팀장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걸어나오는 게 보였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였다. 나는 재빨리 팀장 옆으로 다가가 합류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와 같은 인사를 주는 건 별로였다. 그렇다고 ‘방향을 같이 하시지요’라는 식도 곤란했다. 요는, 팀장이 내 존재를 인식하되 내 동행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였다.

상사와 같이 밥 먹기는 아주 심세한 축수가 필요한 일이었다. 일단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며,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외부로 나가는 일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다가 팀장이 점심시간 끝나기 오 분 전에 돌아오는 수도 있어서 끈을

아예 놓아버리기도 애매하다. 빵을 목구멍에 밀어넣고 그 위로 우유를 들이붓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나는 팀장의 불규칙한 점심을 기다려야 하는, 준비된 규칙이었다.

부서장에게 최고의 조력자란 결국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 아니겠냐고, 내게 이 업무 아닌 업무를 주던 선배는 말했다. 아마도 선배는 그 팀장의 충직한 오른팔이었거나 아니면 팀장의 고독을 불쌍히 여긴 게 분명했다. 선배는 내게 그런 말을 남긴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나는 여전히 점심시간이 나의 효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업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깝고 습관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깝다.

사실 팀장이 함께 먹을 사람이 없겠는가. 적게는 세 명, 많게는 열 명도 넘는 사람들이 팀장의 속도를 고려하며 밥을 먹었다. 그중에 하나가 나였고, 지금까지 팀장과 단둘이 밥을 먹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란 것이 있기 마련이어서 늘 팀장의 식사 적공들이 건재할 수는 없는 거였다. 피치 못할 출장, 회의, 약속, 인사이동, 여러 변수가 있을 테고, 그러다보면 팀장 혼자 밥을 먹는 순간도 오게 되는 것이니, 바로 오늘 같은 날 말이다.

메뉴는 개성 손만두국과 해물된장찌개였는데 인기가 있었던 개성 손만두국은 이미 동이 나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팀장은 해물된장찌개를 앞에 두고서, 반지 못한 만두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주방에 새로 오신 분이 개성 출신이라지? 최근에 이북식 메뉴가 많아진 게 그 때문이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팀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 지명들 어간 메뉴가 나오면 무조건 그걸 선택한다고 했다. 팀장은 구내 식당 주방장들의 출신지에 관심이 많았다. 전라도가 세 명, 경상도가 한 명, 충청도가 한 명,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두 명.

“일부러 지역 인배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강원도와 제주도도 섭섭하겠지. 아무튼, 개성 출신 주방장의 손이 이만하다더군. 아쉽게 됐네.”

어쨌거나 우리가 먹는 건 개성 손만두국이 아니었다. 팀장은 농친 물고기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했다.

“어머니가 이북 분이셨거든. 만두국을 좋아하셨는데, 그게 생각 나서 말이야.”

“개성 분이셨어요?”

“아니, 함경도 쪽. TV에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어. 핵실험이라든지 하는 식막한 뉴스여도 말이야. 이 년 전에 돌아가셨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개성공단과 개성신도시까지 흘러갔다. 팀장은 매끄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내 혀 아래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다. 최대한 공백 없는 대화를 위해서 말이다. 팀장은 개성신도시 이야기에 반응을 보였다.

“재미있는 얘긴군. 하긴 개성공단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모두 놀랐지. 개성신도시 분양이라고 안 될 게 뭐 있겠나. 이렇게 하거나 물꼬를 타기는 거야. 어머니가 계셨다면 엄청 관심을 가지셨을 걸세. 그, 뭐라고? 개성 힐스?”

팀장은 즐거워 보였다. 그가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식구들에게 개성시범단지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을 상상하니 뿌듯했다. 어쩌면 곧 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 동료 팀장에게 “저 콰도일이란 친구, 참 웃겨!” 하며 유쾌한 표정을 지을지도 몰랐다. 나는 그날 밤부터 북한 분양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게 2011년 인가 삼천 명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다. 민통선 부근 평당 팔백원짜리 땅을 뺏기기해서 판 거였다. 개성신도시에 관한 내용은 딱히 찾을 수 없었는데 너무 쉽게 나돌고 있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스운 건 이게 구글에서 영문으로 검색하면 좀 보였다는 것이다. 전 세대 선착순 동·호수 지정, 개성 힐스로 시범단지를 선점하라. 2021년 10월 입주……. 그건 마치 내가 그 정보를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정보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내가 취한 능동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걸 열심히 메모했다는 것이다.

개성신도시의 모델하우스가 용인에 있다는 건 의외였다. 분양

현장에 가볼 수 없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모델하우스에 가는 길이 집을 나와서 적어도 북측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파주나 연천 즈음이라면 또 모를까. 아니면 김포나 일산 정도. 용인시 처인구라니, 개성신도시의 모델하우스에 가기 위해 나는 오히려 남쪽으로 움직인 셈이다.

‘개성시범단지의 시작-개성 힐스’라는 작은 풋말을 발견하기 전까지 십여 개의 비슷한 모델하우스를 지나쳤다. 선영이 그렇게 분양 중계를 해텔 때도 흘러들었는데 내가 너무 눈과 귀를 닫고 살았을 뿐, 정말 많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그걸 누아체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생기는데도 여전히 입주할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마술처럼 느껴졌다. 칠천 세대, 삼천 세대, 이천 세대……. 그렇게 대용량으로 묶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모델하우스 오픈 시간이 아홉시 삼십분이었고 내가 도착한 시간은 열한시 삼십분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건물의 세 면을 감싸며 길게 늘어선 있었다. 귀한 정보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들과는 꽤 많았다. 아마 오다가다 여기가 북한인지 북한강인지도 모르고 놀러온 뜨내기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연인이나 부부로 보이는 사이도 있었다. 선영 말대로 모델하우스가 재미있는 테이트 코스의 하나라도 된 모양이었다. 사실 지난밤에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결국 나는

여기에 혼자 왔지만 좀 어색하긴 해도 외롭진 않았다. 생각해보면 이전 업무의 연장 같은 거니까. 선영보다는 팀장을 고려해서.

두 시간 후 나는 모텔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일단 번 호로부터 한 장 뽑았다. 489번이었고 내 앞에 이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인터넷으로는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필기를 알려면 489번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이런 기다림이 내게 묘한 안정감을 준다는 게 의외였다. 기다리면 순번이 오고 동선이 정해진다는 게 편안했다. 심리적으로는 거의 반나절쯤 이 지났을 때 전광판에 489번이 떴다. 상담 창구로 가서 물어본 첫 질문이 뭐였는지는 나 스스로도 요약할 수 없을 만큼 상황했는데 상담원은 그중에서 단어 하나를 낚아채고는 이렇게 말했다.

“고객님, 통일이 아니고 그냥 분양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북한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럼 통일이 되기 전에는 제가 입주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통일과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객님의 분양받으셨는데 통일이란 호재가 생기면 그야말로 대박 나는 거고요. 다만 시일을 장담할 수 없지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입주를 시작하시면 입주 시점에 맞춰서 유치원이 두 곳 생기고, 2024년에 쇼핑몰이 들어서고, 2025년에 모노레일이 뚫린다는 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일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설사 통일이 얼른 오지 않더라도 집값은 무조건 뛴다는 거예요. 일만오천 세대입니다. 이만한 대단지 보셨어요? 이 정도면 개성 힐스 자체가 하나의 도시거든요. 당연히 남측 건설사에서 짓는 거고요. 고객님의 입주하실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투자는 통일과 관계없이 가능하죠.”

“청약 통장이 있으면요?”

그렇게 말하자 상담원이 반색을 했다.

“어머, 청약 통장이 있으세요? 기금은 얼마나 됐어요?”

“한 십 년 됐을 텐데.”

“그럼 그건 잘 간수하셨다가, 나중에 여기서, 그러니까 남한에 서 쓰시고요.”

“남한 어디요?”

“어우, 고객님. 요즘 많잖아요. 요 맞은편에 쭉 다 분양사무소에요. 하지만 저희는 청약 통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랬다. 북한에서는 이미 외국인들의 아파트 투자가 일게 모르게 진행되어왔고, 그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 그리고 발 빠른 남한 사람들도 북한의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북한 사람이 아니면 집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타국에 나와 있는, 혹은 자주 드나드는 북한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처럼 이런 일에 무감한 사람들은 DMZ를 우리 영토의 말단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실 그곳은 말단이 아니라 심장부다. 지금은 한반도의 한가운데를 허리띠처럼 둘러메고 있지만 그 허리띠가 느슨해질 때가 오면 그 일대는 가장 뜨거운 개발 지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벌써 파주며 연천이며 포천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

“적절한 북한 입주지를 저희가 연결해드려요. 입주하고 싶어하는 북한 주민들은 무척 많으니까 염려하실 거 없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고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제도 달러나 위안화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다 진행해드려요. 기존 분양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에 모든 금액을 완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님 어떤 타입 생각하세요? 45평형, 38평형, 27평형, 세 타입 있고요. 분양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당 필집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과 옵션 다섯 가지, 이건 별도고요.”

“어떤 평형이 가장 인기 있어요?”

“지금 45평형 A타입은 벌써 마감이에요. 북한에서는 소형 평형을 꼭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큰 집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45평형 B타입도 로얄층은 벌써 마감이 임박했구요.”

그렇게 설명하던 상담원은 막상 내 예산을 확인하고 나서는 얼른 노선을 바꿨다. 전체 금액을 다 완납해야 한다면, 옵션까지 고

려한다면, 내 경우엔 38평형도 조금 버렸다.

“소형 평형의 인기는 전 세계적인 추세죠. 게다가 여기 27평형은 구조가 크게 빠져서 편찮으실 거예요. 서비스 면적이 이렇게 나 큰 경우는 드물어요. 여긴 현관에서 부엌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펜트리고요. 저, 여기는 발코니 확장이 되면 이민큼 넓어지죠. 여기는 이제 골프채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요즘 레저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유모차나 뭐 웬만한 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상담원은 평면도 위에서 이리저리 화살표를 그려댔다. 국경 몇 개쯤은 고무줄놀이하듯 기뻔히, 지구 어디라도 갈 수 있을 듯한 움직임이었다.

“혹시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허가한 건지?”

“허가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투지를 누가 막아요. 캐나다 사람도 사고, 쿠바 사람도 사고, 문제는 당침 여부죠. 경쟁을 보셨죠? 자원 백 퍼센트 추첨제거든요.”

상담원이 중간에 목이 갈라진 소리를 냈기 때문에 좀 미안해질 지경이었다. 상담원은 내부를 보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나는 더 머물 여력이 없었다. 팀장과의 점심식사에 썬먹을 만한 정보는 이미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이였다.

“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산가족들인가요?”

내 말에 상담원이 웃음을 겨우 참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찌 보면 오히려 화를 식이는 표정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려 했다.

“국가 차원에서 하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분양은 해냅니다.”

어딘가 기시감을 주는 말투였는데 그곳을 벗어나고 나니 출치가 떠올랐다. 이미 종영한 드라마 속에서 송중기가 쓰던 말투였다.

모델하우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표적이 되었다. 선크림 쓴 여자며니 한 분이 다가와서 ‘할 거냐’고 묻더니, 내가 망설이는 걸 보고는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엄청 왔다 갔어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인 거 알죠? 다들 통일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언젠가는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내 대가 아니면 후대에서라도. 아니, 해외 투지도 하는 판에 뭘 망설여요.”

내가 얼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렇게 물기도 했다.

“아저씨, 실마 통일이 영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빨리 될까요?”

“빨리?”

“내후년이라든지.”

나는 실없는 소리를 했다. 내년은 너무 코앞이었고, 내후년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당연히, 선영과의 결혼이었다. 이주머니는 “아아, 급하시구나”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피 받고 팔면 되는데 뭘.”

“피요?”

“프리미엄 최소 오천은 순식간에 불을 거리고요. 일단 넣어보고, 되면 여기로 연락 줘요. 잘해드릴게.”

명함이었다.

“정보도 묵히면 뚱 된답니다! 할 거면 빨리 헤어지요. 거기가 터가 좋아서, 그렇게 묻힌 게 많다고 하잖아요. 골동 같은 거. 개성공단 세울 때 엄청 파갔대요. 그런데요!”

그 대목에서 이주머니는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아직도 많대!”

이주머니를 벗어나자 이번에는 갱마를 청년이 다가와 서류철을 들이밀었다.

“독립운동가 생가 터 회복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십 초면 되는데요.”

너무 생소한 정보들로 인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나는 그를 그대로 지나쳤다. 청년은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여러분, 개성을 이런 식의 개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 힐스가 들어설 자리엔 독립운동가들의 생가가 있었어요. 그걸 그냥 허물다니요. 여러분, 역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서명 부

탁드립니다.”

청년이 내 쪽으로 다가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계속 서명을 권하는 줄 알고 몸을 사렸는데, 그도 키가치는 모양이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나 나나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처지였다. 어색했다. 서명을 한 이들은 거의 없어 보였다. 먹고살기 힘든 판에 생가 터라니! 어차피 모든 집에서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는 것이니가. 버스가 왔고, 나와 그는 마치 무계중심을 잡으려는 사람처럼 멀쩡이 멀어져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 청년이 했던 말들, 개성 주변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을 만큼 고풍스러운 곳이라거나, 개성은 단지 아파트촌이 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보고라든가, 역사적으로 좋은 기원을 들려야 할 자리라든가, 이런 말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는데 우습게도 그 말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었다. 투자처로서의 개성에 대한 확신을 키워주었던 것이다. 모델하우스에서 받아온 쇼퍼백 안에는 ‘대동강물’이라고 적힌 생수 한 병과 ‘개성-평양-신의주 고속도로’라고 적힌 두 루마리형 키친타월 두 개가 있었다. 키친타월을 돌돌 풀어보았다. 적당히 도톰하고 적당히 길게 이어졌다.

대동강물과 키친타월은 내 휴대폰 안에 몇 장의 이미지로 남았다. 점심 메뉴가 무엇이든 간에 이걸 보여준다면 팀장이 흥미로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팀장과 단둘이 점심을 먹을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나는 주로 여섯 명 중의 하나거나 네 명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누군가가 전제를 하고 있는지 며칠간은 외부 일정으로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팀장과 얼굴을 마주 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조금 우물해 보였고, 바빠 보였고, 내가 개성신도시라든지 그 만오천 세대 대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틈은 어디에도 없었다. 허룻밤의 꿈처럼, 내가 개성신도시를 잊을 만한 상황들이 계속되었다. 그중 하나는 팀장이 거의 좌천에 가까운 인사이동을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개성신도시에 관심을 보였던 그 팀장 말이다. 그가 가고 곧 다른 팀장이 왔지만, 나는 이제 누구의 점심도 기다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이 빠진 클라처럼 변해버렸다고나 할까. 거기에는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놓여 있는 내 구 년 연식의 연애도 한몫했다. 이렇게 오래 서로 연락하지 않은 건 거의 처음이었다. 어찌되었건 나는 이제 누구의 동선도 살피지 않고, 그저,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식당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점심은 이십 분이면 충분히 먹기 때문에 책상 앞이나 변기 위에서 짧은 졸음을 누릴 시간도 생겼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점심시간이었고 그 공백이 다소 어색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을까봐 겁이 났다. 결국 관심이 있는 것을 검색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에 누이거나,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게 내 점심시간의 한 패

탄이 되었다.

개성 힐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던 날로부터 이미 한 달이 지난 후였다. 당연히 분양 일정도 끝났을 시점이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가물거물했다. 그 이야기의 소비자랄까 고객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이상 유효하지 않은 화제였고, 나도 자연스레 개성 힐스를 잊고 있었다. 그러다 TV에서 '개성 힐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천원짜리 즉석 비빔밥을 조리법 대로 따라 하던 중이었다. 나는 전자인지에 밤을 넣고 얼른 TV 앞으로 가서 앉았다. 경기도 용인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화제가 탄생했고, 그 분양을 반대하던 한 대학생의 방화였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불은 건물 입구의 담벼락 일부를 태웠을 뿐 금방 꺼졌다고 했다. 모델하우스의 이름은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화면 속에는 개성 힐스라는 네 글자가 똑똑히 쓰인 현수막과 광고판, 심지어 대학생의 시위용 피켓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학생은 개성신도시를 반대하는 뜻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그의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게 분명했다. 아무런 연쇄반응을, 적어도 그가 기대했던 식의 반응을 불러오지 못했다.

나는 점심시간마다 열심히 그 개성 힐스 화재 관련 기사를 찾아봤고, '용인 모델하우스 화재'라고 검색어를 넣어보기도 했는데 나오는 것은 새로운 분양 소식뿐이었다. 어쩌다 개성 힐스 관련한

글을 찾긴 했으나 그건 꽤 치열한 경쟁을 때문에 조기 마감 됐다는 내용이었다. 확실히 내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어떻게 북한 이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느냐는 것, 이산가족이라도 되어야 가능한 동선이라고 믿었던 것, 그 모든 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화석 같은 생각이었던 것이다. 상담원의 말대로 분양은 분양이었는데 말이다. 지도 위에서 단순히 봐도 개성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의 소비자가 좌천되어 떠나버린 뒤에도 개성은 여전히 유효했다. 금요일 저녁, 동네 슈퍼에서 '대동강 페일에일'까지 발견했을 때는 이게 확실히 신호라는, 이미 신호였다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였다는 확신이 왔다.

토요일 아침 일찍 개성 힐스의 모델하우스로 갔지만 같은 위치엔 이미 다른 게 들어와 있었다. 분양 현장으로 잠작되는 이미지가 몇 개의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었는데, 아직 도시 건설 전의 모습이어서 사실 저기가 개성인지 용인인지 알 길이 없었다. 어느 화면이었나, 포클레인 하나가 화면 밖으로 뚫고 나를 것처럼 공격적으로 몸을 세웠다. 그리고 한 삼을 뜨면, 화면에 이런 자막이 나타났다.

‘평양 2차 분양의 신화’

개성이 있던 자리에 평양이 들어선 것이다. 개성이 전작 마감되어어서 이미 전설로 남았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상담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작은 소동이 몇 개 남아 있던 물량까지도 완판시켰다고 말

했다. 개성을 놓쳤다면 이번엔 꼭 잡길 바란다며 내게 평양을 권했다. 이미 1차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후 그 옆으로 2차 분양이 시작되는 거라 분양가는 조금 더 비싸다고 했다. 평당 백삼십. 개성에 비해서도 훨씬 비쌌다.

“최고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통 체증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모든 도로가 8차선에 보행자 통로는 다 지하로 이어져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계획도시지요.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규제가 풀린 북한 쪽으로 외국 자본부터 일단 몰릴듯이 들어갈 겁니다. 여긴 기존의 평양이 좀더 큰 규모로 확장되는 그 경제 지점에 있어요. 일반 세대고요. 이것도 엄청난 대단지요. 아파트 내부는 다 최고급 자재가 들어가요. 평양이잖아요. 북한에서도 최고 몇쟁이들이 산다는.”

최고 부자도 아니고 최고 몇쟁이라니. 별거 아닌 말의 차이가 나를 이상하게 혼들어놓았다. 그전에 개성 상담을 받았을 때는 분명 최고 부자라는 표현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고 몇쟁이라면 그보다 한 수 위일까. 일단 권유대로 모텔하우스의 내부부터 보기로 했다. 개성 때는 내부를 보지도 않았던 게 후회스러웠다. 왜 그랬을까. 아마 혼자여서, 그게 이유였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건 가장 소형인 21평형뿐이었다. 직원은 내게 허락된 선택권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

들어가지마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매끄럽게 설치된 신발장이 먼

저 보였는데, 뭐랄까, 신발장마저도 일반 세대 대단지인 느낌이였다. 오른쪽으로는 현관에서 바로 부엌으로 빠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걸 펜트리라고 부른다는 걸 알았다.

“여기에 참치 통조림 같은 거 쭉 두면 되겠네. 라면 같은 것도,

미니 슈퍼처럼.”

펜트리에서 어떤 여자가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나는 스펀도 좋아해”라며 맛장구를 쳤다. 남자는 저쪽으로 가보려고 여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나까지 인솔한 건 아닌데,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들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가 딱히 미로도 아니었지만 뭔가 정해진 동선이 있는 게 내게는 편했다. 스칸디나비아식이라까, 그런 풍의 부엌을 지나, 깔끔한 욕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다. 그 한 쌍의 연인은 여기저기 문책을 열어보며 숨바꼭질을 하더니 침대 끝에 결터앉았다. 남자는 제집 안방이라도 된 양 등을 대고 벌렁딩 누웠다. 여자가 남자의 부푼 배를 통통 소리가 나도록 두드렸다. 그들은 모텔하우스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송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판교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등, 떠들어대는 걸 보니 한두 번 놀아본 솜씨가 아니었다. 남자가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 거실 쪽으로 나왔다.

생각해보면 선영이 요구했던 것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었다. 바로 저런 거였던 것이다. 모텔하우스에 놀라가서 구경하는 것, 저 연인들처럼, 선영은 예식장에 놀라가서 커피나 얻어먹으며 미

래에 있을 예식의 견적을 내보라고도 했고, 웨딩 박람회에 놀러
가자고도 했다. 당장 집을 계약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웨딩드
레스를 살 게 아니라고 해도 구경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이 많다고 했다. 대체 뭐가 재미있다는 것인지 나는 동의할 수 없
었지만, 사실 돈이 드는 테이트도 아니었는데, 왜 나는 그런 걸 부
담스러웠을까. 결혼식과 신혼집과 신혼여행은 아이쇼핑을 하기
에는 너무 크게 느껴졌다. 이상한 부담감은 하다못해 선영이 육실
슬리퍼를 사러 이케이에 가지고 갔을 때 그조차도 피하게 만들었
다. 그런데 지금 저 연인들은 부담 없이 쇼핑놀이를 하고 있지 않
나. 나는 그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침실2로 갔고, 모델하우
스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 문책을 열어보는 거라는 듯이, 이
것저것 잡아당겨보고 들여다보고 다시 닫았다. 내가 침실2의 벽
장문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서 아끼의 연인이 황급히 튀어나왔
다. 셋 모두 깜짝 놀랐다. 멀리서 여자가 깔깔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모델하우스는 조용해졌다. 마감을 알리
는 직원이 다가왔다.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미지 화면
이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눈이 내
리고 있었다. 눈이라니, 직원이 말했다.

“평양에서는 11월 말이면 첫눈이 와요. 이걸 작년 첫눈 오던 날
풍경이죠.”

그 풍경이 너무 꿈같았던 나머지, 모델하우스 밖으로 나오지마

자 조금 외로워졌다.

선영을 다시 만난 건 거의 팔 주 만이었다. 단지 물리적인 시간
이상으로 긴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선영이 “개성으로 간 줄 알았
는데!”라고 말하자 좀 편안해졌다. 어쩐지 익숙한 궤도로 진입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먼저 만나자고 한 건 내 쪽이었다. 나는 하루
만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왕이면 자동차를 끌
고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후자는 좀 구차한 부탁이었지만 기동력
은 선영 쪽에 있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구 년 전,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을 확인
했던 그 양평 언저리였다. 나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지점이었다.
나는 내비게이션에 찍을 이정표의 주소도 준비해왔다. 양평의 첫
지점에 가기 전에 들러서 밥을 먹을 만한 좋은 카페도 알아쳤다.
우리가 실사 이별을 하게 되든, 아니면 다시 나아갈 추진력을 얻
게 되든, 어쨌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다. 다행히
선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영의 동네에서 출발할
때부터 도로 사정이 안 좋았다. 차는 몹시 막혔고 겨우 카페에 도
착했을 때 우리를 여기까지 운반했던 자동차는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사람도 차도 많았다. 주차장은 긴 미로 형
태였다. 초반에 빈자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더 나은 자리가 있을
것 같아 좀더 들어가본 게 실수였다. 이스팔트길 위에서 우리는

링반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십 분은 뱅글뱅글 돈 것 같았다.

선영이 짜증을 낼까봐 불안했다.

“그냥 돌아갈까?”

선영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런 반응이 따라왔다.

“또 이런 식이지. 꼭 코앞에 와서.”

선영이 다시 입구로 차를 돌렸지만 아까 봤던 그 빈자리가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차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저기서 어리바리한 자세로 주차장에 들어오던 차 한 대가 운 좋게 바로 빈자리를 발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카페를 떠났다. 선영은 묵묵히 운전했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러나 확실히 한적한 셋길에 차를 세웠다.

“생각해보면 그 언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언니?”

“내가 그 언니 얘기한 게 한두 번이야?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참.”

“그 언니가 뭐였는데?”

“결혼도 주치도 다 똑같다고.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겠지 싶어 서 기다리다보면, 빈자리는 하나도 없고, 결국 아까 갔던 곳으로 되돌아가도 그 자리는 이미 차 있다고. 어딘가 더 좋은 놈이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면 결국 예전에 놓친 그놈이 더 좋다는 걸 일깨워 단 얘기가. 잠깐 주차하는 사이에 없어진 자리처럼.”

“내가 어느 지점이야, 예전에 그냥 놓친 그놈이야, 아니면?”

나는 그렇게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목적이 어디냐고 물었을 뿐이다. 선영의 말—그러니까 선영이 안다면 그 언니의 말이 정말 인생을 압축한 것 같았다. 주차나 결혼이 나 인연이나, 생각해보면 분량조차도 결국 타이밍인 것이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나는 지꾸 말을 기다리고만 있었다. 선영이 시동을 걸었다. 해가 조금씩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길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다. 목적지는 분명히 의미 있는 곳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구 년 전 출발이 되었던 나무가 아니라 웬 논두렁길로 안내했다. 비포장도로는 폭을 조금씩 좁혀나갔고 지연 조명은 이미 꺼진 후였다. 갈 데까지 가보자, 그런 오기로 계속 들어갔지만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렸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유언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말이다. 둘 다 내려서 앞을 보니 길은 한 십 미터 앞에서 보란듯이 끊겨 있었다. 더 없었다. 저 앞엔 천이 흐르고 있었다. 구 년 사이에 동태가 바뀌었다.

차는 쌍삼기를 켜고 뒤로 뒤로 후진하기 시작했다. 후방 센서는 길게 몸을 늘어뜨린 역새까지도 장애물로 인식하고, 시종일관 ‘삐비비’ 소음을 냈다. 양쪽 창문을 내린 채로 선영은 왼쪽 아래를 보고, 나는 오른쪽 아래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바깥쪽 끝 끝 아래를 보며 거의 비슷한 대사를 내뿜었다.

“오라이. 오라이! 여긴 팬잖아. 더, 더, 팬잖아, 더.”

이렇게 길이 길었나 싶을 정도로 길고 긴 후진이였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었나?”

선영이 말했다. 바퀴가 눈두렁에 빠지는 게 아닌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 팬잖은 상태로, 어떤 틈에도 빠지지 않은 상태로, 무서히 출발 지점에 도착하니 그 침묵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수많은 ‘오라이’들이 허공에 민망하게 떠 있었다. 선영이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후진으로 구백 미터를 왔네.”

다시 뒤로, 그렇게 온 거다. 차는 이제 유연하게 왼쪽으로 몸을 틀었고 그 좁은 길을 빠져나갔다. 눈두렁길을 벗어난 다음 누군가가 먼저 배가 고프다고 말했고, 저만치 눈에 들어온 게 프랜차이즈 스테이크집이었다. 그리로 들어가 달처럼 노란 등불 아래 마주 보고 앉았다. 직원이 메뉴판 두 개를 주고 갔다. 우리는 각자의 메뉴판을 들고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붉은 빛깔 선명한 거.”

“핏빛으로.”

취향은 확실히 비슷하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뒤에 한쪽은 스테이크에 대해, 다른 한쪽은 와인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하나는 와인 리스트, 다른 하나

가 스테이크 리스트였다. 우린 서로 다른 메뉴판을 보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빛깔이 붉은 스테이크와 와인을 적당히 고른 셈이었다. 그 스테이크를 한 점 먹고 와인을 몇 모금 마신 후에 내가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아까 그 눈두렁길 말이야. 구백 미터. 그게 우리랑 닮은 것 같아.”

“막다른 길이라서?”

“아니. 그 길이 계속됐다면, 그랬다면 우리 차는 계속 갔을 거잖아. 너랑 연애하라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겐 계기가 필요했던 거야. 아까 그 길처럼, 뒤편이 계기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음지여서 헤쳐나가잖아. 뒤로든, 앞으로든, 옆으로든, 어디든. 난 너랑 같이 있으면 연애는 결혼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선영이 아니라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주절주절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다. 나는 조금 울기까지 했다. 선영이 휴지를 건네주었다. 이별은 자연되었다. 후진으로 구백 미터를 기어오는 동안 나와 선영 사이의 시트비늘도 조금은 뒤로 간 게 분명했다. 우리는 다시 구백 미터쯤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구백 미터를 후진한 후 내가 선영과 다시 모델하우스에 간 건, 그녀가 원하는 테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실

분양 신청서까지 몇 생각은 굳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서 선영과 번호표를 뽑고 상담원 앞에 나란히 앉았을 때, 상담원은 놀이를 원리로 끌어올렸다.

“두 분 예비부부시죠?”

나 혼자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정보가 있었다. 평양에서는 신혼부부 우선권이 있었다. 구십 퍼센트는 추천으로 하고, 십 퍼센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였다. 계약 시점에서 예비부부거나 결혼 오 년 이내 부부인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유리하다는 거였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입주 시점은 2023년 5월. 그 안에 통일이 될까.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오 년 내에 남북통일이 될 확률보다는 내가 결혼을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South’에 포시를 하고 신청서를 냈다. 대부분의 평형이 이미 마감이라 평양 2차 분양에서 내게 주어졌던 유일한 선택권은 단지 남이나 북이나 정도였는데, 그건 국적이 아니라 발코니 달린 두번째 침실의 창문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걸 알게 된 건 이미 분양 신청서를 낸 다음이었다.

평양의 눈 내리는 풍경을 선영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우리의 침실에서는 보다 익숙한 풍경—남산타워와 한강이 보였다. 딱히 평양에 있다는 느낌을 들지 않았다. 물론 진짜 평양 한복판의

아파트에서 단지 창문 하나가 남쪽으로 뚫렸다고 해서 남산타워와 한강이 보이겠는가. 물리적인 거리를 너무 초월한 연출이긴 했으나,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 아래 ‘실제와 다른 연출용 사진입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영이 그 풍경에 만족했던 것이다. 그런 한강 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질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바람이 부네?”

선영이 창문을 열고서 말했다. 아니,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델 하우스에서 말이다. 아마 뭔가 기능적인 장치들을 동원했겠지만 그 인공적인 바람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신청했고, 같이 발표를 기다렸다. 나는 떨어졌고, 선영은 당첨되었다. 21평형, 신혼부부 우선 조건으로 신청한 결과였다. 정확히 따지면 분양받은 주소는 평양이 아니었다. 평양 근교라고 해야 할까. 평양의 생활권이라고 하기에에도 애매했지만, 전 문가를 말대로 도시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통일이 된다면 진짜 그 도시의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 수도 있을 것이다. 첫눈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아파트 단지 앞으로 축구장 사십 배 규모의 쇼펄들이 들어올 거라는 말을 해준 건 알리었다. 타이밍이 좀 어긋나긴 했는데, 평양 2차 분양에 대한 얘기는 확실했다. 내가 오랜만에 에어비엔비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모낸 지 한참 지난 알리의 쪽지 두 개를 받

건하게 된 거였다. 생각해보면 내가 알리의 집에 머물렀던 그 나홀이 이런 줄거리를 가능하게 한 셈이었다. 알리가 첫번째 쪽지를 보낸 시점은 내가 10월의 나홀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나보다 한 발 앞서 있던 이 청년은 개성이 싫다면 평양도 고려해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평양 2차 분양이 곧 시작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여러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두번째 쪽지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시점에 보낸 것으로, 언젠가 하와이에서 다시 보기를 바라며 그때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건 보편적인 인사말일 수 있었지만, 내가 헤아만 하는 그 일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론 문제는 여기, 지금, 당장이었다. 예기치 않은 투자 때문에 우리의 예산은 더 줄어들었고, 전셋집이나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찾기도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집을 산다면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 정도가 우리 몫 아닐까. 대부분은 은행 못일 것이다. 내가 알리에게 '사실 나는 남한의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예산은 부족하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고 쪽지를 보낸 건, 단지 부동산 전문가인 알리가 어떤 말을 할지가 궁금해서였다.

돌아온 건 확실히 정답이었다.
'은행에 가라.'